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7호 【루계 제23129호】 주체99(2010)년 6월 26일(토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주체99(2010)년 6월 23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6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성스러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으로 조직령도하여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고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빛내여나아가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주체99(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함경남도 송백전부, 풍성구역종합식당 종업원들, 평령리핀지배인 송신화, 외국문도사출판사 편집원 리은철, 채취기계공업지도국 자재상사 청진지구자재공급소 소장 최홍범, 칠산군인민위원회 책임부원 정수길, 명간탄광봉사관리소 소장 리연숙, 동림군인민병원 부원 김광명, 해주시제1인민병원 의사 유정남, 강계철도분구 만포국제련운사업소 번역원 지혜성, 경흥시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백창희, 강동군수의 방목소 수의사 홍경옥, 강동군 삼대면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장철만, 강동군전대집 로동자 안성애, 함경남도 송백전부 로동자 한철송, 회천정밀기계공장 로동자 전광철, 신포시영화보급소 부원 류필너, 함흥시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와 현대성행진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김정일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이번 현대성행진은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에게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으로 정의와 평화를 바라보고있으며 누가 대결을 고위하고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이고있는가를 똑똑히 확인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미국에 의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시기에 아름다운 도시 평양에서 국제적인 현대성행진을 벌이면서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모두의 힘을 합쳐나갈것을 다시금 확약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청년학생대회와 현대성행진을 통하여 우리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내용으신 조국통일3대원장의 정당성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 대범하신 조지에 의하여 마련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상과 제도, 정결과 신앙, 민족과 인종의 차이에 관계없이 굳게 단결하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나갈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전세계앞에 힘있게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제적인 현대성행진기간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인디아신문이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요구이다》의 첫째 제계와 둘째 제계를 인디아신문 《인디아 엔드 월 드 이벤트》 12일부가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반미군민대회 진행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온 나라가 불구대천의 원수들에 대한 천만군민의 치솟는 중요와 적개심으로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반미군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장소인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도로들은 60년전 침략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이쳤으며 오늘날도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무모한 전쟁책동에 미쳐달뛰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칠 열적의 기개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화국기와 붉은기들이 나뭇가지고있는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래를 보여주소!》, 《수령정사 사용위》, 《군민대단결》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12만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반미투쟁전선 평양지

부의 전면적인 군사적라격행동에 진일할것이며 피의의 아성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침략자들을 한숨에 족쳐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군인민들이 《인민을 돕자!》는 구호밑에 원민미품을 적극 발양하는 한편 회천발전소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공사를 제기일내에 필적으로 완공하며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여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과 역적배당이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반미반파괴대결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방직공장 기사장 리광명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로동계급은 60년전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이친 미제원수들에 대한 단결을 높이고 단결을 단결시키자고 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말살하려는 흉악한 야망에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짐승도 낮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자위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격찬하고 그는 미제를 극악한 침략자, 회색의 살인마로 락언하였다.

그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 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를 불바다로 만들고 침략자들을 한숨에 족쳐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 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를 불바다로 만들고 침략자들을 한숨에 족쳐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 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를 불바다로 만들고 침략자들을 한숨에 족쳐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2010년 6월 25일 평양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할 것이다

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의 연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와 남조선피괴전망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반피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기상과 열적의 투지에 충만되어있는 때에 《6. 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반미군민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조선인민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뜨였으며 오늘도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면서 존엄높은 공화국을 앞설하려고 미쳐달뛰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피괴적력대군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앞세우고 세계제국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미제는 저들의 침략군대와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피괴군으로 구성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군사물자를 동원하여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막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살륙과 약탈, 파괴에 찬장이 된 미제침략자들은 《닥치는대로 죽이라》고 떠벌이며 저들의 더러운 발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남도로소를 가리지 않고 무고한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파괴하였습니다.

미제는 국제법을 관공하게 위반하면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도 마구 사용하였으며 저어 인자판을 투하할 흥까지 꾸미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전쟁기간 수백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참혹하게 학살되었으며 새 생명이 약동하던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이 제더미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당파수령의 두리에 굳게 조국수호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제국주의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핵무기를 불법반입하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었으며 해마다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여온 핵전쟁책동의 주범도 미국이며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말살하고 우리 민족문제를 북남관계문제에 간섭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 없더라면 우리 인민이 분렬의 비극속에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당하며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헤쳐나가는 일도 없었을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은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남조선에서 친미보수적인 리명박패당을 권력의 자리에 앉힌 미국은 피괴적력대군을 반공화국대결의 돌격대로 내세워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완전히 가로막음으로써 북남관계를 전전파국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인 조치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반공화국 《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평화협정제결안을 외면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 데서 우리를 공공연히 핵공격대군으로 다시 지칭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공격흥심을 포괄적으로 드러냈으며 남조선피괴전망들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정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최근 조선서해해상에서 일어난 피괴군함침몰사건은 북남관계를 틀튼 침략의 무리들을 단애에 쓸어버릴 의지가 어둡었습니다.

시위대에서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일심단결로 받들자!》,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침략자들의 무리들을 단애에 쓸어버려라!》 등의 구호를 높이 외치고있다.

손에 손에 구호들과 선전화들을 들쳐들고 침략자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미국적력대군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함성을 리치며 기세드높이 행진해가는 북수자들의 대오는 시간이 흐를수록 융용한 대하를 이루었다.

시위대에는 미제가 력사적으로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하고 겨레가 당한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리명박적력대군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안고 도발자, 침략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산악같이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 무슨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통한 《제제》를 떠벌이면서 조선반도에 침어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피괴적력대군을 내세워 우리를 합선침몰의 《장본인》으로 날조한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 무슨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통한 《제제》를 떠벌이면서 조선반도에 침어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혁적력을 강화하는 길로 계속 나갈것입니다.

미국은 침략의 6. 25뒤에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전승의 7. 27이 있다가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침략의 6. 25뒤에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전승의 7. 27이 있다가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1 면에서 계속

지금 청년학생들의 귀견에는 미제야수들에게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부모형제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웨치던 피의 절규가 생생히 들리는듯 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만일 적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세계는 백두명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선군조선의 청년전원들이 무적의 총대로 도발자들을 어떻게 격멸소탕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조선의 500만 청년학생들은 지난 세기 50년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처럼 육탄결사대가 되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것이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답게 강성대국건설에서 정춘의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총폭발시켜나갈때 대하여 말하였다.



《 6. 25 미제반대투쟁의 날 》 평양시반미군민대회장

본사기자 김종훈 특필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지하는 세계 청년학생조직대회는 우리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를 가지겠다.

대회참가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남조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조선전쟁을 지배할 목적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지난 60년세월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적붕괴를 끊임없이 감행해온데 대하여 지적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적이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여 미군이 남조선으로부터 자기 권리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조선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불변의 지침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를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게하시는데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10년전 역사적인 북반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로 불신과 대결로 치달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조선민주주의적 연립의 판로를 개척하고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없었던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는데 대하여 평가하고 6.15공동선언리행에 북남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다

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전면파탄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천안》호침몰사건은 리명박 《정권》이 상전인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하여 꾸며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이며 류예하는 특대형모략극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감과 조선의 자주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성운동을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 의지로 부름을 받아가고 있다.

첫째로, 6.15공동선언을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으로 적극 지지하고 중단없이 리행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연대성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기!

조선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조선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원칙과 방향, 방도들을 확실히 밝힌 새 세계의 통일강령으로서 조선인민의 총의와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을 집대성한 조선통일의 불멸의 기치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전쟁위험성이 클수록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민족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계 각

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지지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인민족이 단합하여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자!

둘째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적여론을 적극 불리 일으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군사적위협과 핵선제공격기도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회와 핵전쟁발발의 근원이다.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일본과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자.

대회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원칙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불안정한 현 전장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는것이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목소리를 더욱 높이자.

셋째로,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

몰사건을 날조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책동을 지지파탄시키기 위한 국제적연대성운동을 더욱 강화하자!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합선침몰사건은 미국의 부추김에 의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자작극으로서 인류의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한 원칙적립장과 강경대응조치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합선침몰이라는 천추에 용남 못할 특대형모략극을 날조하여 북남관계를 전면파괴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를 조성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철수를 내리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세계 각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힘을 합쳐 나갈 때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될것이다.

우린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국제적연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라고 굳게 촉망한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과 학생조직체들, 청년학생들과 통일공작부들, 락원비밀한 각지의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신철박물관, 제곱교양관들을 참관하고 북수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분계연선의 도시 개성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백수인민에게 걸쳐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먹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분노와 복수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미국침략선 《서먼》호격침략선의 침입과 미제무장강선 《루에블로》호가 있는 대동강강기슭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북수결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인류전쟁사상 류례없는 살륙과 파괴행위를 감행한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폭로규탄하였다.

분노의 땅 신천과 개성시, 원산시, 강서구역 수산리를 비롯한 시, 군, 리들에서도 미제살인자들의 야수적행위를 날마다 고발하며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려는 북수자들의 맹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강선과 김철의 강철전사들, 북창의 전적생산자들, 순천과 덕천의 란

부들, 무산과 재령의 광부들, 평양의 주남직공장의 천생산자들, 락원비밀한 각지의 로동계급속에서는 반미파괴결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원의 의지가 새차게 분출되었다. 사리원시 미공, 통천군 신암, 연안군 소정,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서 모임을 가진 농업근로자들은 전식사항을 보장하던 1950년대 농민들처럼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을 들고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원근미를 높이 발휘할 열의를 보여주었다.

각지의 청소년학생들은 북수결의 모임, 옹변모임 등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만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어도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면서 미제 리명박악역패당과 함께 괴뢰합선침몰사건을 우리와 련계시키면서 사랑하는 조국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의 우려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전초의 청춘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몸숨바쳐 보위하는 생애, 방패가 되며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명예를 걸고不愧의 세위 원수들을 영영 쓸어버리고야말 골은 의지를 피력하였다.

은 나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의 피값을 받아내려는 북수자들의 맹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강선과 김철의 강철전사들, 북창의 전적생산자들, 순천과 덕천의 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 참가자 일동

2010년 6월 25일 평양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 진행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발발 60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가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정면에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자!》, 《《천안》호사건을 날조한 미제와 리명박패당을 단죄 규탄한다!》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디아고 알렉산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일행, 그리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네덜, 도이칠란드, 라오스, 레바논, 수리아, 스리랑카, 세네갈, 인디아, 요르단, 에스빠냐, 벨남, 팔레스티나, 쿠바, 키르그리스, 보르두갈 등의 청년학생 조직대표단, 대표들, 라틴아메리카대학대학생기구, 아랍학생총동맹 대표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과 제1본부조선청년동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용철 1비서를 비롯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일꾼들, 판계부본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최태복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안고 대회에 참가한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일행,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파라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힘있게 고조시키고있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된다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남조선에 침략을 사주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승고한 애민애족의 리념과 결단에 의하여 10년전 역사적인 북반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불신과 대결로 치달던 북남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판로를 전환되고 민족분열사태가 일찌기 없어져나간다는 결정적인 사변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미국과 리명박악역패당이 조작한 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으로 하여 이 땅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근대와 인민, 청년들은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고 건드려서는 미일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극악한 전쟁광신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을 내리고야말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있는 세계민주청년련맹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며 세계진보적인민들, 청년학생들과 굳게 단결하여 인류사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대결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국제적인 여론을 더욱 고조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디아고 알렉산드르 페라즈 비에이라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보충보고를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아말메 라모스 코르데로 쿠바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인 타파스 신하 인디아민주청년련맹대표단 단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통

일위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는것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청년들앞에 내서는 절박한 과제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적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조선인민에게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셨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민족분열사상 처음 6.15공동선언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되어 조선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전환이 조성되어 왔다고 말하였다.

현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발전정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시해해상에서 발생한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미제가 리명박악역패당과 야합하여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범적으로 벌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합선침몰사건은 미제와 리명박부수당국이 조작성 비열한 모략극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청년들은 앞으로 미국과 리명박부수당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용수 제1본부조선청년동맹 대표 단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갈 줄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

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와 련대성행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울리는 편지가 땅도 떨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동안 장내에서 《미제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친선단결 전세!》 등의 구호들이 연방 울려나왔다.

대회는 《조선은 하나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성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대회에서 한 디아고 알렉산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의 기조보고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세계민주청년련맹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과 청년들을에게 가장 열렬한 인사사를 드리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우리들이 귀국에 와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린들이 이번을 진행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대회를 비롯한 연대성활동은 조선청년들의 투쟁정신과 용감한 모범을 따르배우는 국제청년들에게 커다란 고무요를 주게 될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세계민주청년련맹에 있어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하는것은 하나의 유전인자와도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었습니다.

우리 련맹은 태어난 첫날부터 반제청년조직으로서 조선청년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세계에 평화가 있을수 없으며 진정한 화복과 행복도 있을수

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은 침략과 전쟁으로 수백만 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절멸과 기아의 희생물로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불공평한 제도인가를 하는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불행하고 파괴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배세력들의 무자비한 탐욕과 재부의 집중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하고 아프리카니스탄의 사태들은 그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을 때에 평양에 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환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이러한 친절환 환대를 바라고 온것이 아닙니다.

우린들은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와서 연대성행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땀 흘린 투쟁에 더욱 힘있게 합세하도록 할것이라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린들은 60년전에 미국이 조선인민에게 선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지른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투쟁을 매일 매 시각 계속 벌려나갈것입니다.

우린들은 세계청년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편지를 쓰라고 한것이 조선에 있다라는것과 우리의 형제지배연인 조선인민이 아직도 불행되어 살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집 때문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린들은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조선인민이 수십년간 동안 언제나 통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온데 대하여 똑바로 알고 지지할것입니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수십년간 동안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0년전에 발표된 6.15 북남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게 됩니다.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반공책동, 자본주의보수세력들의 악선전기 무리악할것이라고 하여도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선인민의 령원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오늘의 숙명을 매일 매일 현실로 전하는것과 우리의 형제지배연인 조선인민이 아직도 불행되어 살고있는것을 전적으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집 때문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린들은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조선인민이 수십년간 동안 언제나 통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온데 대하여 똑바로 알고 지지할것입니다.

세계 진보적 청년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수십년간 동안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0년전에 발표된 6.15 북남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대회에서 한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충보고

하나의 뚜렷한 실증으로 됩니다.

만약 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사건과 련계가 없다고 확인한다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공책동을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왜 진상에 대한 공정한 증거들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 사건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었습니까?

우린들은 이 사건이 미국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꾸며낸 또 하나의 날조극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만민의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주들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의 진실이 끝끝내 밝혀져도 남의 나라를 폭격하고 강점하기 위한 수리를 찾았는데 있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미군의 강점에 있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난지 7년이 된 오일까지도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누가 있었습니까?

4 면으로 계속

나는 먼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위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여 대중과 대양을 넘어 국제청년학생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친제 조선청년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세계 진보적인학생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과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때에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의의있는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천안》호사건은 날조한 모략극이다.》

미국은 그후에도 자기의 범죄적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반제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 봉쇄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गर 분별된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고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의 과제로 나시고있습니다.

유혼을 받들어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적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으로써 조국통일위업 실현을 위한 전환적극운을 일으키셨습니까?

2000년 북반수뇌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사건이었습니다.

6.15 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여 온 지난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이 가장 정당한 현대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5 면으로 계속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이다

6월 25일은 미제가 세계세계야망 밑에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미제에 의해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전쟁의 포망이 맺고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미제는 오늘도 역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전쟁도발

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 쉰이며 백년속적인 미제의 조선침략전쟁 도발장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방글을 발표한다.

UP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조선군의 훈련이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3일내에 평양을 점령할수도 있다.》고 망발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일문판 39페이지) 미군사교도단 단장 로버트는 1950년 6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답에서 《...남조선군대는 현재수준으로 보아 외국의 동등무력의 2~3배의 병력을 물러칠수 있는 실력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남조선 《서울신문》 1950년 6월 9일)

남조선군을 얼마든지 《격파》할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조선도서 《조선전쟁》 1부 1959년 155페이지) 1951년 5월 3~14일에 진행된 전국최상층문화회에서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남조선군은 보급품이나 장비를 38° 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아두고있다. 그들은 중심진지를 만들고있지 않았다. 38° 선과 서울사이의 이르는 곳마다 모두 병참지역이었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일문판 69페이지)

(미국도서 《비사조선전쟁》 일문판 41~42페이지) 결국 델레스가 현지에서 확정하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최종적으로 비준한 전쟁비밀지령이 리승만피괴문에 하달되었다. 남조선피괴군 참모총장 체병덕은 1950년 6월 21일 1, 2전투사령부들에 25일 새벽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당시 남조선피괴군 17련대 참모장교였던 한수환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1950년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은 외출이 금지되고 전쟁명령을 대기할것이 지시되었다. 24일 밤에 25일 새벽을 기하여 38° 선을 돌파하여 북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할때 대한 비밀명령을 받았다.》 (일본잡지 《가이즈》 1953년 8월)

미제는 유엔안보총회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기들의 침략행위를 《합법화》하려고 하였다. 명목상 미국이 유엔의 《명령》으로 싸움에 뛰어들었다. 실제로는 유엔이 미국의 압력으로 원조요청을 한것이다. 미군이 전투행동에 들어가고있다와 트루먼대통령이 성명란 2~3시간이후에 유엔은 북조선에 원조를 주도록 전체 성원국들에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신문 《미어라이프스타임스》 1950년 7월 23일)

1. 미제의 남조선강점책동

1) 미제의 38° 선분별안조직책동

1945년 8월 일제는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러서 항복에 동의한다는것을 전한한국측에 통고하였다. 통고를 받은 미국은 대일전쟁을 통하여 단적으로 조선을 감점하려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결판땅이라도 차지할 목적으로 《실제적인 해결책》을 세우기 위한 모략을 꾸미었다. 미국대통령 트루먼의 각본에 따라 조선의 38°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군의 항복지역을 분담이 나누어가질때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미로군성에서는 그 초안을 《일반명령 제 1호》라는 이름을 붙여 트루먼에게 제출하였으며 그는 이것을 연합국들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2) 미제의 남조선강점책동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맥아더는 24군단장 하지에게 일본군의 항복서를 받아내며 미국을 대표하여 남조선에 점령하고 통치할것을 지시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에서의 미로군》 1972년 25~26페이지)

3) 침략무력의 공격준비과정

미제는 《2계단 전쟁론》에 따라 남조선피괴군으로 하여금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미군을 개입시키는 수법에 맞게 침략무력을 공격대형으로 편성하였다. 당시 38° 선에는 5개 사단이 제 1계대로 진격되었으며 3개 사단은 작전예비대로서 서울북근에 집결되어있었다. (일본도서 《조선전쟁》 83페이지)

4) 유엔의 비법적도용

미제는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며 조선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엔안보총회사회의 유엔총회에서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많은 성원국들을 리용하여 유엔의 《권위자》가 무력침공을 하였다것을 감추어보고 하였다. (조선도서 《조선전쟁》 1부 1959년 85페이지)

미제의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며 조선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엔안보총회사회의 유엔총회에서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많은 성원국들을 리용하여 유엔의 《권위자》가 무력침공을 하였다것을 감추어보고 하였다. (조선도서 《조선전쟁》 1부 1959년 85페이지)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엔안보총회사회의 유엔총회에서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많은 성원국들을 리용하여 유엔의 《권위자》가 무력침공을 하였다것을 감추어보고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엔안보총회사회의 유엔총회에서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많은 성원국들을 리용하여 유엔의 《권위자》가 무력침공을 하였다것을 감추어보고 하였다. (조선도서 《조선전쟁》 1부 1959년 85페이지)

2.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미제의 군사적준비책동

1) 《북벌》 군사전략계획의 작성

제 2차 세계대전후부터 세계세계제국력량을 로골적으로 추구한 미제는 그 실행을 위해 조선전쟁을 포함한 세계대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작성완성하였다. 맥아더사령부에는 《G-2》, 《G-3》이라고 하는 세 전쟁도발을 위한 작전계획과 경찰 및 첩보공작을 연구하는 집단이 무어졌고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조직된 《역사반》과 《카토》기관이 그에 진입되었다. 미제는 이 집단을 통하여 전쟁에 걸쳐 조선과 만주, 씨베리아를 연결하는 예견한 《A, B, C 계획》을 연구작성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은 《A 계획》과 관련한 《북벌》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잡지 《전부르 오라 이》 1964년 9월호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이전 일본군참모본부 차장이었던 가와베 (K), 모리호에 아리스에 (A), 다나카 (T), 오노 (O) 등 중요참모들로 구성된 《카토(KATO)》기관과 옛 일본군 특공부 작전과장 왓모리의 《맥아더사령부 역사반》 등은 《북벌》 계획을 작성제공한 주체는 비밀단체였다. 이들은 《북벌》 계획을 위하여 《남조선군의 제복과 미군제복을 입고 출국하였다.》고 한다. 《북벌》 계획은 우선 38° 선에 남조선군, 미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중부와 서부의 2개 작전지대를 만든다. 전선 서부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평양북방에 해공군이 협동하여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전선동부 우익은 양덕, 좌익은 원산을 향해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며 진격한다. 여기서도 원산북방에 해군부대의 상륙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작전계획이 맥아더사령부에 비치된것은 1950년초이며 그것은 그대로 남조선측에 전달되었다.》

1945년 9월 2일 맥아더는 하자의 이름으로 《한국인에게 고향》이라는 《포고문》을 남조선각지에 뿌리였으며 9월 7일 맥아더사령부는 《포고》 제 1호를 발표하였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로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북위 38° 선이남과 동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한다.》는 《포고》 제 1호에 이어 《포고》 제 2호, 제 3호가 발표되었다.

맥아더는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미제침략군 전함 《미주리》호의 함참모 일본파의 항복문서조선인식을 끝내고 조선의 북위 38° 선이남을 점령한다는것을 폭로하였으며 원이 미제침략군 24군단에 남조선상륙을 명령하였다. 1945년 9월 4일 미제침략군 24군단의 선봉대가 김포비행장에 도착한데 이어 9월 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군단무력이 인천과 부산, 목포에 무력상륙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도 《실지에 있어서 월가의 조선인민에 대한 전쟁은 그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고있다.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 일문판 148페이지)

1) 조선전쟁의 서막-38° 선 무장도발

남조선강점점으로 조선을 분별시킨 미제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의 3년반동안에 5150여차의 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주로 공화국의 경내와 남조선 《경규군》 간에 편대병력과 중무기까지 동원되어 전개되었던 38° 선에서의 전투는 다분히 남조선측의 《전쟁로선》에 의해 고무되었다. (남조선잡지 《사퇴와 사상》 1990년 6월) 38° 선무장도발의 직접적인 조직자, 지휘자는 미국이었다. 1949년 10월 피괴군군 사단장회의에서 로버트는 《38° 선이북지역에 대한 많은 도청은 나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수행될것이다. 남조선군의 침공은 오직 미군사교도단의 명령에 의하여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본도서 《미국은 왜 패하였나》 14페이지)

미제는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며 조선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미제는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며 조선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엔안보총회사회의 유엔총회에서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많은 성원국들을 리용하여 유엔의 《권위자》가 무력침공을 하였다것을 감추어보고 하였다. (조선도서 《조선전쟁》 1부 1959년 85페이지)

4. 조선전쟁도발진상에 대한 외곡, 날조책동

1) 전쟁도발준비를 가리우기 위한 책동

미제는 남조선을 잠깐 침략한 것 시가부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그 준비를 다그칠 목적일에 《남정》, 《남벌》 허위전선공세를 비롯 친웃이 벌리었다. 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승만피괴도당에게 《남조선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것을 세계가 인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정》, 《남벌》 허위전선공세를 감행하였다. (미국도서 《조선전쟁》 대담없는 질문 44~45페이지)

미제와 그 추주들의 조선전쟁도발진상에 대한 외곡, 날조책동을 연구화하고 세계적평을 위한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제와 그 추주들의 조선전쟁도발진상에 대한 외곡, 날조책동을 남조선강점을 연구화하고 세계적평을 위한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도 없고 지울수도 없다. 미제가 제우리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쓴다고 하여도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만약 미제와 그 추주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팔팔한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의 총검은 추호의 자비심도 없이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말것이다. 주제 99 (2010)년 6월 24일 평양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남조선을 비롯하여 미국이 책임진 지역을 일본군에 항복을 받을것을 지시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의 1945년 8월 13일 일제는 합동참모장회의에서 미국동군사령관

